

고용지표 부진에 위험 선호 심리 부각되며 3대지수 상승



미국시황/ESG 김윤정 _yunjeong.kim@ls-sec.co.kr
RA 성현영 _hyseong@ls-sec.co.kr

3 대지수 상승 가운데 기술주 내 엇갈림, 기업실적 순항

- 미 증시는 DOW +0.28%, S&P500 +0.62%, NASDAQ +1.30% 상승. 통신서비스, 기술주, 소재 강세, 에너지, 금융 약세
- 엔비디아(+2.2%), 브로드컴(+1.7%), 퀄컴(+4.7%) 등 시스템반도체 강세 반면 마이크론(-0.4%), 시게이트(-4.7%) 등 메모리반도체 약세
- LESG에 따르면 현재까지 실적을 발표한 S&P500 기업 436곳 중 85.1%가 EPS 컨센스 상회. '94 이후 평균치 68% 크게 웃도는 수준

예상치 하회한 고용지표에 금리 인상 기대 후퇴

- 7월 비농업 일자리수 MoM -2.3만명 감소, 컨센스(+8.3만명) 대폭 하회. 이전 2개월간 일자리 지표 또한 합산 -10.3만명 하회 조정. 지방정부 교육 부문(-5만명) 감소가 결정적, 소매거래(-1.9만명), 금융활동(-1.4만명) 등도 감소세
- 7월 실업률 4.1%, 전월·컨센스 하회. 경제활동참가율 61.4%로 하락, '21년 2월 이후 저점. 7월 시간당 평균임금 MoM +0.1% 컨센스 하회
- 국채금리 하락 10Y 4.64%(-2.9bp), 2Y 4.19%(-5.4bp). CME FedWatch 9월 금리 전망 동결 60%로 우세

국제유가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기대에도 상승

- 국제유가 상승 WTI \$78.2(+1.2%), Brent \$83.6(+1.3%). 베센트 재무장관은 호르무즈 해협 개방과 자유로운 이동을 허용하는 합의가 이르면 수요일에 가능하다고 발언. 이란 측도 합의가 근접했다고 언급했으나, 미국의 MOU 위반에 대한 배상을 포함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발언
- 한편, 미군 탄약비축량 부족 보도에 트럼프 대통령 국방부·미 방위기업에 탄약 공급 증대 요구. 한편, 예산 증액안 의회 수용여부 선행 과제

티커	종목명	수익률 (1D, %)	내용
MU	마이크론	-0.4%	Citi는 목표주가를 기존 \$1,400→\$1,150로 18% 하향 조정, '매수' 투자 의견은 유지. 2Q27 메모리가격 사이클 정점을 전망하며, 향후 4개 분기 동안 DRAM과 NAND 가격 모두 전분기 대비 상승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. 샌디스크(-3.7%), 웨스턴디지털(-3.8%), 시게이트(-4.7%) 등 동반 하락
NVDA	엔비디아	+2.3%	AI 인프라 투자 가속화 위해 텍사스 스타게이트 데이터센터 전력 인프라 개발사 '랜시움'에 최대 \$3B 투자 계획 보도. 또한 차세대칩 루빈 울트라에 HBM 메모리 용량 축소 검토
SPCX	스페이스X	+15.8%	아거스 리서치가 투자 의견을 '보유'→'매수'로 상향 조정, 목표주가 \$160로 제시. AI 인프라 구축 관련 대규모 자본지출 우려가 상당하나, 비교적 빠른 시기에 수익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분석. 한편 콜 옵션 거래량 사상 최고치 경신
BRK-B	버크셔 해서웨이	-0.5%	8일 실적발표. 2분기 영업이익 +16.3%YoY 증가. 자사주 매입 확대에 보유 현금 '25년 말 대비 약 2% 감소. 신임 CEO 아벨 체제 하 4년만의 현금보유액 감소. 2분기 동안 \$4.5B 규모의 자사주 매입
TEAM	아틀라시안	+35.3%	실적발표. 회계연도 4분기 실적이 컨센서스를 상회하고 건조한 가이드언스를 제시함에 따라 주가 폭등. 매출 +28%YoY, 클라우드 부문 매출 +31%YoY, AI 서비스 월간 활성 사용자수(MAU) 100만 명 돌파. CEO는 최대 \$250M 규모의 자사주 매입 계획 발표. 이에 BofA는 투자 의견 '중립'→'매수', 목표주가 \$105→\$175로 상향 조정